록히드마틴 납품하던 성진테크윈 3000억 '과전류 보호기 시장' 노크

과전류 유입 경로 분석해 차단
빅데이터 등 첨단장치 보호

"최첨단 전자장비와 빅데이터는 전류·전압이 조금만 높아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초래됩니다. 과전류 보호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계광 성진테크윈 대표(사진)는 23일 "축사와 건물 화재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과전류는 산업체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성진테크윈은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과전압·과전류(서지·surge)를 막아주는 보호장비를 생산한다.

이 대표는 과전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 "원격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고, 빅데이터가 사라지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폭발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부품이 점차 작아지고 저전력·고성능화함에 따라 무선설비와 통신설비에서 서지 보호기 등 과전류 보호기 시장은 커지는 추세다.

성진테크윈이 개발한 스마트 서지 보호기는 이상 전류 등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통신선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는지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특징이다. 통신선 등의 결선 상태를 자가 진단하고 수명을 예측해 과전류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시장은 3000억원 규모로 10개 이상의 국내 업체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외국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면서도 "통신사 건설사 공공기관 이외에도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홈 시스템 등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죽동산업단지에 있는 성진테크윈은 원래 방위산업체다. 1990년대 경남 마산수출자유구역의 한 미국계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던 이 대표가 2001년 설립했다. 무선응답전화기 등의 통신부품을 제조하던 이 회사는 2003년 한 미국 업체 관계자의 방문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다. 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1차 하도급업체로부터 군용 부품 주문을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는데 당시엔 몰랐다"며 "군용 부품은 진입장벽이 있고 수출도 유리할 것 같아 미국 업체와 부품 공동개발 및 납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성진테크윈은 2005~2006년 한국형전투기(KFP)사업에 참여해 최초의 국산 헬리콥터 조종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주거래처로 국내 육·해·공군에 60~70종의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군용 부품의 납품은 다품종 소량 주문에 의존해야 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 방위산업체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최소 7~8년을 버텨야 수익이 나고, 개발업체로서 분담금(개발비의 5~10%)도 내야 한다. 이 대표는 "군용 부품·장비는 외주 생산하기도 힘들고 우리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군용 부품을 제조하던 기술력으로 민간 품목(서지보호기)을 내놓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전=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중기사랑나눔재단 '따뜻한 인생 한끼' 내달 6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 신청을 받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과 연인, 친구 등 평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기억에 남을 식사를 선물하는 이벤트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번 행사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인 유현수 셰프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유씨가 운영하는 한식당 두레유 식사권이 지급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csr.kbiz.or.kr)에서 받으며, 신청사연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2분기 선발 인원은 300명이며 대상자는 다음달 18일 발표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2012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홈마스터 '에어락 분리수거함'

네 칸에 분리수거 … 음식물·재활용 배출 손쉽게

밀폐 강화해 냄새 차단
일회용 비닐 탑재로 깔끔 처리
최대 4칸까지 맞춤 조합 가능
"중국·대만 등 해외수출 타진"

3초 만에 설치 선반·행거 등
기발한 생활용품으로 '승부'

박현욱 홈마스터 대표가 기능을 강화한 신개념 분리수거함의 사용법을 시연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리수거함은 부직포와 비닐로 제조한 제품이 많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남아 있는 액체 등이 흘러 악취가 나고 바닥이 오염되기 십상이었다. 쓰레기를 버린 뒤엔 잘 씻고 말려서 재사용해야 한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홈마스터는 이 같은 불편함에 주목했다. 기존에 판매하던 분리수거함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냄새를 차단하도록 밀폐력을 강화했고,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도록 했다. 분리수거함이지만 휴지통이나 음식물쓰레기통으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에어락 분리수거함'이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으로 선정된 이유다.

◆쓰레기통 겸용의 '만능 분리수거함'

홈마스터는 그동안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던 분리수거함을 리뉴얼했다. 제품을 써 본 소비자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6개월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에어락 분리수거함을 새로 선보였다.

주거공간이 좁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실내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밀폐력에 가장 신경을 썼다. 본체와 뚜껑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설계해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했다. 재활용품의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제품에 인조가죽으로 제작한 가림막 커버를 씌웠고,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오염물질이 묻더라도 걸레로 문지르면 금세 닦인다. 11m 길이의 일회용 비닐을 필요한 만큼 묶어서 쓰다가 버릴 때는 내장된 커터를 이용해 자르면 된다. 비닐째로 외부 분리수거장에 갖고 나가면 되고, 비닐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한 칸을 종량제 휴지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만으로 집안의 쓰레기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3칸과 4칸 제품 중 선택하면 되고 소비자가 조립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었다. 위쪽 프레임에 선반을 장착해 수납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다음달 정식 출시되는 에어락 분리수거함의 가격은 6만~7만원대로 NS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생활용품 '틈새' 시장 파고들 것"

박 대표는 "기존엔 나가서 재활용품을 버린 뒤 분리수거함을 갖고 들어와 씻어야 했는데 이젠 외출하면서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게 돼 편리할 것"이라며 "중국 대만 등 현지 바이어와 수출을 논의하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던 박 대표는 휴지통 제조 사업을 하던 친구의 일을 돕다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8년 홈마스터를 설립한 뒤 제조 설비를 구축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생활 속 크고작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꾸준히 내놨다. '3초 폴딩선반·행거'는 3초 만에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선반·행거로 지난해 노루페인트의 하우홈 홈쇼핑 방송에 공급해 1만4000여 개 판매했다. '공백 변기클리너'는 길이가 조절되는 일회용 펄프브러시가 달린 욕실 청소용품이다. 최근 개발한 길이가 조절되는 '일회용 먼지떨이'와 냄새 및 증기를 위로 빼는 프라이팬용 뚜껑 '스팀뚜껑'은 홈쇼핑에서 곧 출시한다.

박 대표는 "업력은 짧지만 매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라며 "올해 분리수거함 등 다양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매출 50억원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인천=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홈마스터

설립	2018년	위치	인천 서구 대곡로
업종	생활용품 제조	매출	50억원 (올해 예상치)
직원	6명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현대리바트, 집 꾸며주는 '홈체인징 프로젝트'

현대리바트는 오는 26일까지 미국 홈퍼니싱업체 윌리엄스소노마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집을 꾸며주는 이벤트 '홈체인징 프로젝트'(사진)를 진행한다. 1등과 2등에 당첨된 3명에게는 홈스타일링 서비스 '디자인 크루'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디자인 크루는 홈스타일링 퍼스널 쇼퍼로,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기존 판매사원 중 디자인 업체 등에서 근무한 10여 명을 디자인 크루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윌리엄스소노마 본사의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을 거쳤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에 328억 투입

중기부, 오늘부터 신청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3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75억원을 지원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2만 개 업체에 328억5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에 따라 1만450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채널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상품 분야별로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진단해 지원책을 찾는다. 채널별로 TV홈쇼핑과 T커머스는 300곳에 최대 1500만원, V커머스는 1000곳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몰은 1600곳을 대상으로 기획전 100회를 열 예정이고, 해외 쇼핑몰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400곳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에는 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상품성은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2000곳을 대상으로 전담 셀러를 매칭해 상품 등록부터 판매, 홍보 등 전 과정을 대행해줄 계획이다. 상품성이 부족한 400곳에 대해선 전문가의 문제점 분석과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해 상품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주최 한국경제신문 협력 (주)레이버플러스

노사 상생을 위한
한경 노사리더 MBA
12기 교육생 모집(동유럽 6박8일 포함)

참여형 교육 진행, 기업방문 현장체험, 교육중심 해외연수
한국경제신문사와 레이버플러스가 새로운 노사관계 전문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교육 차별화
전문 콘텐츠 / 참여형 교육구성 / 네트워크 활동지원 / 성적우수자 시상

1 한국경제신문과 레이버플러스의 전문 콘텐츠 활용
2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3 전문 교수 및 원우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지원
4 수료증 제공 및 성적 우수자 시상

주요 교수진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 권혁 교수 부산대학교 / 이근덕 대표 노무법인 U&I / 박승호 대표 레이버플러스 / 최종석 전문위원 한국경제신문
※ 각 분야별 전문강사진으로 구성

주요 교육내용
- 2020 노사관계 쟁점 이슈와 대책
- 선진국 노사관계 동향과 시사점
- 개정 노동법 쟁점사례 연구
- 노동운동의 흐름과 현장노사관계 동향
- 현장 노사갈등사례와 해결방안
- 노사리더를 위한 21세기 리더의 조건
-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 노동이사제 국외사례 특강

교육 개요
기간	2020년 4월 9일 ~ 10월 29일 (목요일 야간, 총 16회)
교육	이론 교육, 국내 연수, 국외연 포함 전체 85시간
비용	550만원(VAT없음, 국외연수비 140만원 별도)
연수	동유럽 6박 8일 일정(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장소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강의장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js@hankyung.com) 또는 팩스(02-360-4899) 접수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한경아카데미(ac.hankyung.com) 확인 가능합니다.
마감	3월 27일(금)까지
대상	노동조합 간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인사노무관리자(임원, 관리자 직급)

지난 참여기업 HDC 현대산업개발 LS산전 SK broadband 대한적십자사 SNUH 삼성전자 KDC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emart Incheon Airport 인천항만공사 posco KAC 한국공항공사 KOEN 한국전력기술 KIAT HYUNDAI 등 75개사 노사리더 300여명 수료